

오늘의 계시판

2006 곡성 심청축제 개막 곡성군 곡성을 섬진강변 생태공원 일원

오늘의 행사 (28일)
▲2006 곡성 심청축제=곡성군 곡성을 섬진강변 생태공원 일원. 판소리·줄타기 공연·콘서트 등 공연 및 공연이 삼박씩 모이기, 용궁 의상전, 심봉사 시극 공연, 심청이 효행 체험 등 이벤트 행사. 뽕떡어멈 주막, 심청골 향토 음식점 등에서 먹거리 판매. 10월 1일까지.
▲살기좋은 전남 만들기 심포지엄=오전 10시 목포시 대반동 신안비치호텔 10층 아리랑홀. 성경룡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정책의 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 박동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협력국장(주민참여 지역 만들기), 고석규 목포대 다문화문화콘텐츠 사업단장(해양 관광의 거점으로서의 섬 만들기)의 주제로 발표.

▲제 3회 장애인 정보화추진 결의대회 및 컴퓨터 전달식=오전 11시 광주시북구 동림동 장애인 복지체육관. 장애인 및 가족 등 700여명 참석해 결의문 낭독.
▲2006 광주·전남지역 전파기술 세미나=오후 1시 호남대 광산캠퍼스 서봉관. '문화중심도시 조성과 유비쿼터스 기술 및 인력양성'이라는 주제로. 위규진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과장이 '전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파 관리 정책 방향', 김인환 제주주식산업진흥원장 등이 'IT 컨버전스와 테스트베드'에 대해 발표.
▲제 76회 순천 사랑 아카데미=오후 2시 순천 문예회관 소극장. 운무부 경희대 생물학부 교수가 '새들의 세계와 인간'이라는 주제로 강연.
▲전남도 시장·군수협의회 2차 정례회=오후 4시 보성군 다비치콘도.

▲제 53회 황토골 자치마당=오후 4시 무안군 송담문화예술회관. 최승훈 한국조지문화연구원 소장이 '앞사기러면 변화를 주도해라'는 주제로 강연.
▲21세기 담양포럼=오후 4시30분 담양군 문화회관 대공연장. 김영식 한국웃음요가연구소장이 '웃음요가를 통한 건강관리법'에 대해 강연. (29일)
▲완도 소랑대교 개통식=오전 11시 완도군 금일읍 사동리 소랑대교 현장. 평일도~소랑도간 연도교(길이 202m·폭 10m) 개통.
▲제 126회 강진다산강좌=오후 3시 강진군 문화회관. 정순태 황칠나무 전문가가 '잡이재대의 서남해'라는 주제로 강연.
▲마량항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 준공식=오후 4시 강진군 마량면 마량항. 국비 120억원을 들여 마량항 일대에 조명 시설을 갖추고 야외

공연장·산책 진입로 설치.
▲제 505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대회의실. 김동신(주)솔로몬기업 전략연구소장이 '우리 농업의 생존 전략'에 대해 강연.
▲건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제 11회 정기공연=29일까지 오후 7시30분 드림 아트홀.
▲이보미 초청 가야금 연주회=28일(목) 오후 7시 광주 빛고을 국악전수관.
▲광주시립국극단 수시공연 '한가위 국악한마당'=29일(금) 오후 7시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꽃등 들어 님 오시면=29일(금) 오후 7시 담양군 문화회관.
▲동신대 의상디자인학과 졸업작품전=10월 2일까지 상계 갤러리.
▲조선대 디자인학부 졸업전=10월 7일까지 조선대미술관.
▲신세계미술제 해외교류전=10월 9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5·18관련 그림 및 사진전=30일까지(재)5·18기념재단.

뉴스퀴즈

31.대법원장이 지방법원을 순회하면서 쏟아낸 발언들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대법원장 자진 사퇴' 요구까지 촉발하며 법조계 안팎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공판 중심주의 및 구술변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지만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비하성 발언' 논란이 일면서 '법조 3관'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섬기는 사법부'를 강조하며 지난해 9월 취임한 제 14대 대법원장은 누구일까요.
① 이용훈 ② 정성명 ③ 윤광웅 ④ 천정배

참여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쿠키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추석이 되면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멀리 떨어져 있던 친척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이다.
낮에는 형형색색의 제사음식을 준비하고 늦은 밤에는 그 동안의 소식이나 이만저만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조성된다.
이쯤 되면 자리를 피하거나 몇 시간 전부터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노총각이나 노처녀이다. 뿐만 아니라 결혼적령기에 있는 남녀들은 찾기가 힘들어진다.
"언제 결혼해?", "너무 눈이 높은 거 아니야?", "만나는 사람이 있어?",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까?" 등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지고 그 스트레스야말로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능가한다.
친척과 한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부담스러워 지고 곤란한 상황이 연출된다. 만약,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군지 물어보

고 언제 결혼할 것인지 답을 해야 한다.
일찍 결혼을 하면 돈을 빨리 모을 수 있다는 소리, 조만간 한번 보 여달라는 소리 등을 듣게 된다. 만약, 만나는 사람이 없다고 아직 결혼생각이 없다고 하면 지금부터 여러 사람을 만나봐야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며, 소개시켜준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친척들도 있다.
이들에게 정말 추석은 피하고 싶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얼마 전 '추석 때 싱글들은 무엇을 할까?'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추석 때 가장 듣기 싫은

하는 것 같다. 믿을 수 있는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좋은 사람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거나 선호하는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잘 나가지 않았던 동창회에 다녀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자신이 소극적으로 노력하지만 기대효과가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자신들이 직접 배우자를 찾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도와주는 곳이 결혼정보회사라고 할 수 있다.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면 결혼을 하지 못해서 자신이 자연스럽게 연애할 능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좀 더 나를 위해 좋은 인연과 만나고자 하는 노력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몇 번의 소중한 만남, 나와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을 찾아주는 결혼정보회사를 선택하는 것도 내년 추석 때는 좋은 인연과 함께 인사드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결혼을 위해 노력하자. 마냥 인연을 기다리는 것은 내년 추석도 올해와 같은 우울한 추석 연휴가 될 수 있다.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www.daksclub.com)
문의 : 1588-6665
<닥스클럽(주) 대표권설턴트>

바둑소식
원익배 박정성·유창혁 2회전 진출
박정성·유창혁 9단이 제2기 원익배 십단전 본선 1회전에서 진동규 3단과 김찬우 4단에게 나란히 승리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27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국에서 박 9단은 진 3단을 상대로 204수 끝에 불계승을 거뒀다. 박 9단은 박승화 초단과 2회전에서 맞붙게 된다. 유 9단 역시 김 4단에게 204수 불계승을 거두고 이성재 8단과 3회전 진출을 다투게 됐다.
이날까지 12편의 대국을 소화한 원익배에서는 지난 5일 박승화 초단이 이재용 5단을 제압한 것 외에 고단진 기사들의 승리가 이어지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지역 바둑대회
백 이강민 5단 <PCA생명>
흑 박정규 5단 <KT A>
백 △로 넓은 장면이다. 우변 백 대마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마지막 승부처.
박 5단의 또 하나의 적은 초읽기다. 30초라는 짧은 시간에 백의 빈틈을 찾아야만 한다. 우선 103으로 쫓힌 것은 바른 방향. 그런데 이 수가 어렵게도 전려일실로 수순 하나를 빠뜨렸고 그것이 대역전의 단초를

바둑소식
원익배 박정성·유창혁 2회전 진출
박정성·유창혁 9단이 제2기 원익배 십단전 본선 1회전에서 진동규 3단과 김찬우 4단에게 나란히 승리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27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대국에서 박 9단은 진 3단을 상대로 204수 끝에 불계승을 거뒀다. 박 9단은 박승화 초단과 2회전에서 맞붙게 된다. 유 9단 역시 김 4단에게 204수 불계승을 거두고 이성재 8단과 3회전 진출을 다투게 됐다.
이날까지 12편의 대국을 소화한 원익배에서는 지난 5일 박승화 초단이 이재용 5단을 제압한 것 외에 고단진 기사들의 승리가 이어지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743>
Can I sit here?
여기 앉어도 됩니까?
A: Can I sit here?
B: Sure! Scoot over, guys!
A: Thanks.
B: You're welcome.
A: 여기 앉아요 됩니까?
B: 그럼요! 그냥 꼭 앉으세요.
A: 감사합니다
B: 물론!
Can I ~? = Could I ~? : 제가 ~해도 됩니까?
guys = you guys (남녀 구별없이 사용됨)
(You are) welcome. : 참 잘으셨습니다. (사례에 대하여) 천만에요.
sit here [씨리어]
Is this seat taken? = Can I sit here?
오하이오 니혼고 <743>
やなこと
못마땅한 일, 싫은 일, 짜증나는 일
A: 痴漢(ちかん)にあった。
B: え〜。
A: そして階段(かいだん)でこけた。
B: かわいそう。
A: 今日はやなことばかり。
A: 치한을 만났어.
B: 뭐라고?
A: 그리고 계단에서 넘어졌어.
B: 불쌍해라.
A: 오늘은 짜증나는 일뿐이야.
やなこと : いや나ことの 준말
〜ばかり : 〜뿐 〜만, 탓으리라는 뜻과 막〜하다 라는 뜻이 있다
男ばかり : 남자뿐이다
行ったばかりです : 막 왔습니다
니하오 풍구워 <461>
養病需要預約嗎?
진료받으려면 예약해야 하나요?
A: 養病需要預約嗎?
B: 不用了, 診費技術全科?
A: 內科,
B: 那就在診室約醫吧!
A: 診室預約하면 예약해야 하나요?
B: 不用, 診費 全科 診費 全科?
A: 內科,
B: 那就在診室約醫吧!
A: 診室預約하면 예약해야 하나요?
B: 不用, 診費 全科 診費 全科?
한자 이야기 <361>
王儉城 (왕검성)
임금 왕, 검소할 검, 재성
왕검(王儉)은 순수한 우리말 '임금'을 이두식 한자로 바꾼 것이다. 따라서 왕검성(王儉城)이란 '임금의 궁궐' 또는 '임금의 서울'이란 뜻이 된다. 왕검성은 고조선의 세운 단군왕검 이래 기원전 108년 위만조선이 한(漢)나라 군대에 패할 때까지 도읍 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오늘날 이 왕검성의 위치를 평양(平壤)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 자료를 통하여 그 위치를 살펴보면 다른 추정도 가능해진다. '산해경(山海經)'에는 춘추전국 시대에 연(燕)나라 동쪽에 조선이 있다는 기록이 있고, 또 '사기(史記)' 조선열전에는 연나라 동쪽에 조선과 요동(遼東)이 있으며, 또 요동에는 함북현(濼濱縣)이 있는데 그곳에 왕검성이 있다고 한다. 또 서광(徐廣)은 발해북안의 창려(昌黎)에 함북현이 있으며 그곳에 왕검성이 있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기록에 따르면 왕검성의 위치는 지금의 허북성(河北省) 창려 지역이 된다. 그런데 왕검성을 평양이라고 보는 것은, 일제 때 조선사편수회에서 조선의 강역을 한반도로 고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제시한 것을 그대로 답습하여 온 결과라고 한다. 북한도 이전에는 요동지방이라고 주장 하다가, 현재는 평양실을 지지하고 있다.